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진원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비	17000twd/한 학기
파견지역	대만 신베이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9/6~1/13	기타비용	한 달에 40만원 생활비

##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자	학 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1 . 17 .

파견자 : △△△ ( △△△)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진원과학기술대학교로 교환학생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처음 갔을 때는 중국어 수업이 아닌 학과 전공 수업들로 시간표가 짜여있었다. 담당자 선생님과 얘기해서 학점 인정이 되는 중국어 수업들로 바꿨지만, 개인적으로 맞는 수업은 없었다. 한국인 교환학생이 없어서 베트남, 일본 학생들과 수업을 주로 들었다. 맞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수업은 베트남 학생들이 진원대학교 3학년이라 중국어 실력 차이가 많이 났고, 어느 수업은 성조부터 배우는 수업이었다. 교수님들은 모두 친절하고 신경써주시고 잘 알려주신다. 개인 번호도 주셔서 수업 관련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연락드릴 수 있었다. 주로 張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 교수님은 책으로 진도를 나가신다. 나는 책을 매번 프린트 해 주셨다. 프린트 본문에 나오는 단어나, 문법 아님 관련 내용에 대한 필기가 많으시다. 필기들이 주요 시험범위라 필기를 열심히 했다. 번째지는 특히 더 몰라서 수업 전에 받은 프린트 본문을 미리 해석하고 모르는 한자 병음을 써놓고 갔다. 王교수님은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해주신다. 기초라 어렵지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시험도 배운 부분에서 쉽게 나오는 편이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너무 소란스럽다. 과제는 가끔 있는 편이다. 한자 쓰기가 대부분이다. 시험은 다 말하기, 쓰기로 2번 나뉘서 본다. 말하기는 본문을 외워서 둘이 대화를 한다거나, 병음이 안 써있는 문장을 말하거나, 써있는 문장을 말하거나, 교수님과 간단한 대화를 한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버스는 10번, 937번이 있는데 주로 10번을 이용한다. 30분에 한 대씩 운영되는데 진원대학교가 중점이다. 버스 어플을 깔아서 시간을 보고 10분 전에 기숙사에서 출발했다. 버스를 타고 20분정도 나가면 七張역이 나온다. 거기서 내려서 MRT를 이용해서 나가면 된다. 돌아올 때는 xindian district office역에서 내리는 게 더 편리하다. 버스에 사람이 몰릴 시간이면 大坪林역에서 내리면, 앉아서 갈 수 있다.

거의 매일 비가 왔다.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우산은 써야 된다. 그래도 기숙사에서 수업을 듣는 곳이 가까워서 뛰어서 갈 수 있다. 밖에 나갈 때는 우산이 필수. 앞머리를 못 길렀다. 한국과 달리 많이 춥지 않아서 좋았다.

음식을 먹을 곳은 기숙사 앞 건물 지하 2층에 있다.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골라 먹을 수 있다. 저렴하게 맛있는 햄버거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이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1700twd	내부구조	4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평일 12시 이후에 방 불을 꺼야 된다. (개인 책상 불, 화장실을 켜도 된다.) 냉장고에 넣는 음식에 날짜, 이름, 호수, 번호 작성. (날짜는 검사하는 날 3 일 전까지 가능, 매주 수요일 검사)		
주인사항	베란다가 양 옆 방과 거인 이어져있어서 시끄러우면 다 들린다. 화장실, 욕실 하수구가 잘 막힌다. (1층에 말하면 뚫어주신다.) 남녀 같은 기숙사 건물, 층은 다르다.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개인 책상과 침대다.

매트리스와 이불은 주셔서 베개와 이불커버만  
 샀다. 매트리스는 겨울에 추워서 담요를 하나  
 깔고 잤다. 서랍은 3단인데, 맨 윗 칸은 열심히  
 잠글 수 있다. 위에 수납장은 칸 조절이 가능.  
 장롱 밑에 신발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는 4인 1실이였지만, 한 명이 중간에 나가서  
 3명이 쓸 수 있었다. 생각보다 넓다.

신발을 신고 다녀서 개인 슬리퍼를 사야 된다.

내 책상 옆자리에 자리가 많아서 캐리어나  
 다른 짐들을 둘 수 있었다.

침대는 책상 위에 붙어있는데 사다리가 온근  
 가팔라서 무섭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엘리베이터 앞에 탁구대가 있다.

실제로 쳐 본 적은 없다.

이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반 쓰레기는 갖고 내려가서 버리는 공간에 버리거나, 방끼리 돈 모아서 내면 일반쓰레기 방 문 앞에 두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치워주시기도 한다.

음식을 쓰레기는 주방에서 버리면 된다.

일반 쓰레기는 아무 비닐에다 하면 된다.

보이는 건물이 기숙사 건물이다.

9층까지 있는데, 우리는 9층이었다.

엘리베이터 타기 좋았다.

하얀 카드를 주시는데, 그 카드를 항상 들고 나가야된다. 나갈 때도 찍고 들어 올 때도 찍어야 된다. 1층에서 잡아서 볼래 못 나간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학교에 야자수가 많아서 좋았다.  
 저기 보이는 곳이 운동장인데, 많은 학생들이  
 줄도 연습하고 농구도 한다.  
 산책하기 좋았다.



진원대학교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건물이다.  
 밤에 봐도 예쁘고, 낮에 봐도 예뻐다.



베트남 학생들과 수업 들던 교실이다.  
 교실은 다 달라서 이 교실이 제일 좋았다.  
 사진보다 더 넓고 책상도 많다.  
 앞에 앉는 걸 추천!

##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힘들고, 중국어도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힘들었다. 빨리 한국으로 귀국할 날만 기다렸다. 하지만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좋은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줬고, 많은 도움을 줬다.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혼자도 많이 나가서 다녔던 것 같다. 처음 대만에 갔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못 알아듣는 말이 더 많아서 대화가 안됐는데, 끝날 때쯤엔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필요한 걸 서둘지만 말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딪히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 외에 학기 중에 친구들이 여행을 와서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편을 같이 여행했다. 공강을 주셔서 편하게 여행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화롄으로 여행했다. 학교에 베트남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기말고사 기간에 이란으로 여행을 간다. 우리에게도 얘기하셨지만 베트남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가지 않았다.

학생들도 한국어 학생들은 처음이라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너무 많이 쳐다보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맨 앞자리라 다행이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도서관에서 했던 활동이다. 도서관에서 틀어서 중국어로 된 동화책 한 권을 골라서 읽고 줄거리, 기억에 남는 글, 그림, 소감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활동이었다. 교실에서 매번 같은 방식의 수업을 듣는 것보다 시간도 빨리 가고, 재밌던 활동이었다.

단계별로 준비된 수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듣다보면 수업도 이해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다.